

■ 사회봉사명령 수행자들 만나보니

중풍노인 수발... 급식소 배식...  
“삶의 소중함 배웁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귀일원'.

평소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지만, 매주 수요일이면 왈칵 활기 넘친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복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워 혼자서는 세수조차 버거운 노인들이 이날만큼은 자식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뉘고 뉘고 몸을 씻고, 환한 웃음을 짓는다.

일주일에만 단 하루 만이라도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죄를 짓고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심

다르게 배웠다. 자신의 작은 노력에 다른 이들이 고마워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실이 놀라웠던 것이다. 하룻밤에 수백만원쯤은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던 시절에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기쁨이었다. 어르신들도 그런 감정을 아들처럼 대해줬다. 김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마친 뒤 매달 지원금을 보내는 후원자가 됐다.

김씨처럼 한때의 잘못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뒤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맛보며 꾸준히 이웃 사랑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

▲사회봉사명령=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

있는 것이다. 최근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선고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주보호관찰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인원은 총 1천200명. 올해는 이달 현재 481명이 사회봉사명령을 마쳤다. 무작정 구금을 하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범죄 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주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 노인 요양시설 및 장애인 시설 봉사 ▲농촌마을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는 '오지마을 순회봉사단' ▲소의계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류야사 도우미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등에 투입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마상철 계장은 "최근 김관제 광주지방법원장이 보호관찰소를 방문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사회봉사명령 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방차 길 터주세요” 광주시 동구 총장로 1가 입구에서 20일 열린 ‘소방차 길 터주기’ 행사.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관 120여 명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도로·주책가 골목길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자는’ 전단지들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계도 활동을 펼쳤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공기총 탄환이 아니라면?

여수 출근길 숨진 배관공 부검 의문의 췌장 5개 찾아내

경찰, 국과수에 감정 의뢰

공기총알이 아니면 무엇일까? 40대 배관공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여수경찰은 김모(40·여수시 선원동)씨를 사건발생 16일 만인 지난 16일 숨지게 한 금속물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금속을 목뼈 부위에서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금속물질은 길이 6mm·폭 2mm 1개, 길이 1mm 미만 4개 등으로 아무리 크게 봐도 공기총 탄환크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찰은 예초 병원 CT 촬영에서 문제의 금속이 폭 4.8mm·길이 1.2~1.4cm인 것으로 나타나 5.5구경 공기

총 탄환(폭 5.5mm·길이 9mm)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5.5구경 공기총 2발을 허공에 쏘 목격자에게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금속이 1번 목동뼈 부위(頸椎部)를 관통하고, 크기도 공기총알과 비슷해서 탄환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금속의 정확한 성분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다. 한편 김모(40·여수시 선원동)씨는 지난달 31일 여수시 선원동 L안경원 앞길에서 뒷목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남의 ID 도용 게임 아이템 판매 200만원 챙긴 3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은 20일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조모(31·울산시 중구)씨를 사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 초까지 인터넷 ‘오디션 게임아이템 판매’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도용, 9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뒤 그 대가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온라인 게임 판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아이디가 충전돼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254명에게 판매하고 수익액의 30%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모(46)씨의 신용카드 2장을 도용해 시가 2천7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사들인 뒤 신분을 감추기 위해 조씨를 통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국 I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뒤 비밀번호를 조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씨의 신용카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변속기어 제거기능 저하 지리산 추락사고 결과

지난달 25일 지리산 횡단도로에서 발생한 순천 대산중 체험학습 관공버스 추락사고 원인은 과속주행에 따른 ‘변속기어 제거기능 저하’와 ‘브레이크 과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례경찰은 20일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분석 결과 사고 버스는 당시 변속기어 일부 부품이 떨어져 나가 엔진 브레이크(저속 기어 1~2단)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브레이크는 페이드·과열로 인해 제동력이 떨어진 상태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한 때의 잘못 씻고 새 삶 찾아 후원금 보내고 진짜 봉사자로

광주 작년 1,200명·올 481명 사회봉사

스럽게 어르신들의 몸을 씻겨가며 자신들의 ‘마음의 때’도 벗겨내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던 김모(46)씨는 경찰에 적발, 올 3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처음 귀일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김씨는 “죽을 맛”이었다. ‘잘나가던 사장님’에서 순식간에 범법자로 전락한 신세도 처량했고, 생면부지의 노인들을 대하는 것에도 얼굴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노인들을 씻기고 식사를 대접하고 방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김씨의 얼굴은 하부가

회봉사 80시간을 마친 김모(32)씨도 나주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박봉을 쪼개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3월 도박죄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광주 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등의 봉사활동을 해온 임모(52)씨는 현재 광주공원 무료급식소의 ‘터줏대감’이 됐다.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그는 지금도 매일 급식소를 찾아가 노인들에게 무료로 노래교실을 열고, 배식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회봉사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런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아름다운 봉사를 펼치고

벌금미납자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법무부 입법예고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벌금 납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벌금형이 구금 등 자유형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제재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나원침 (7241)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nstruction Community) and other construction-related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박철언 전 의원, MBC 상대 승소

서울 중앙지법 민사1부(주심 박철언)는 20일 드라마 ‘제5공화국’이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박철언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며 MBC와 담당 PD 등 7명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특정인에 관한 드라마가 방송될 때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묘사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그 형식이 다소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시.

박 전 의원은 2005년 9월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자신이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돼 명예가 훼손됐다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Hearing Aids, featuring a cartoon rabbit character and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etc.).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branch locations.